

코로나19 알린 리원량 동료 의사도 사망

우한중심병원 의사 3명 숨져 중 전역 의료진 13명 사망 당국 의료진 보호 소홀 지적

코로나19 확산을 초기에 경고한 의사 리원량의 동료 의사까지 감염돼 사망하는 등 중국에서 의료진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보도에 따르면 리원량이 근무했던 우한중심병원 안과 부주임 메이중밍(57)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이 병에 감염돼 지난 3일 사망했다.

리원량 역시 우한중심병원 안과에서 일했으며, 메이중밍은 리원량의 직속 상사이기도 하다. 메이중밍은 1986년 중산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줄곧 우한중심병원

안과에서 근무해 왔으며, 이 병원 안과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책임감이 강하고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보살피며 명성이 높았다고 한다.

그의 사망에 따라 우한중심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의사는 벌써 3명으로 늘었다. 메이중밍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갑상선유선과 주임 장웨이(55)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에서는 이 병에 걸린 의료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우한시 세허장난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평안화(29)가 진단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 숨을 거뒀다.

춘제(중국의 설) 연휴 기간에 결혼할 예정이었던 그는 코로나19가 퍼지자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으면 결혼식을 연기하겠다"고 결심했고, 예비 신부의 양해 속에

방역 최전선에 나섰다 숨졌다.

역시 29세 의사인 샤쓰쓰도 코로나19에 감염돼 지난달 2살짜리 아들과 남편을 두고 세상을 떠났다

중국 전역에서 지금까지 의사와 간호사 1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으며, 감염된 의료진은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이은 의료진의 사망에는 의료진 보호에 소홀했던 병원 당국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한중앙병원은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화난 수산시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중순 코로나19 환자를 처음으로 맞이한 병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병원 당국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커피봉, 신종 감염병 확산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한구령)을 내렸다고 한다.

리원량도 우한에서 새로운 코로나19에

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렸다가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려 경찰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후 환자 치료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

우한중심병원의 한 응급실 의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난 후야 의료진은 N95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했다고 한다.

그 결과 1월 10일 우한중심병원 의료진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례가 나왔으며, 이후 이 병원 응급실에서만 3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우한중심병원 전체 직원은 200여 명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이안 립킨 교수는 "의료진은 코로나19 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하는 데다 장시간 근무와 피로 누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 장비를 착용하더라도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홍콩 재벌 3세 한국서 성형수술 중 사망

강남 성형외과 의료진에 소송

홍콩의 재벌 3세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자 그 가족이 한국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의 의류 재벌인 로팅퐁의 손녀인 보니 에비타 로의 남편인 다니 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성형외과와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 간호사 1명을 상대로 이날 홍콩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로팅퐁은 의류 브랜드 '보씨니'의 창업자로, 보니 에비타 로는 10년 전 남편과 결혼해 7살 아들을 뒀다. 그의 언니 퀴니 로는 2015년 홍콩을 떠들썩하게 한 납치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소장에 따르면 로씨는 35번째 생일을 맞은 것을 자축하기 위해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A성형외과에서 지난 1월 21일 지방 흡입과 유방 확대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로씨는 수술 도중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몸을 뒤척였고, 이에 수술

하던 의사들은 진정제를 로씨에게 추가 투입했다.

이후에도 로씨의 산소 포화도(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량의 최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자 의료진은 그를 급하게 대형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로씨는 결국 사망했다.

로씨의 사망으로 그가 상속받게 될 막대한 유산을 잃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편 다니 치는 의료진에게 살인죄와 문서위조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소송 제기가 홍콩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라우카와는 "이번 성형수술에 홍콩인이거나 홍콩 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만큼 홍콩 법원이 한국인을 소환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이번에 홍콩에서 제기한 소송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에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있다고 SCMP는 전했다.



팔꿈치 인사 하고 제이 인슬리 미국 워싱턴주 주지사가 3일(현지시간) 시애틀 국제지구의 우와지마아시안 푸드 시장의 해산물 코너에서 종업원과 팔꿈치를 부딪히고 있다. 인슬리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악수 대신 팔꿈치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갑 끼고 훈장 수여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왼쪽)이 3일(현지시간) 런던 버킹엄궁에서 열린 훈장 및 기사 작위 수여식에서 배우 웬디 크레이그에게 장갑 낀 손으로 대영제국 사령관 훈장을 달아주고 있다. 버킹엄궁은 코로나19 우려로 장갑을 착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마크롱 "마스크 비축·생산분 징발할 것"

가격 폭등에 당국 조사 개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가격 급등에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향후 마스크 비축 및 생산분을 국가가 징발할 뒤 "의료 전문가와 코로나19 감염자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의 가격 남용이 계속된다면 이를 규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수요

가 급격히 늘어나자 일부 상점과 유통업체들이 관련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

언론에서 이들 제품의 가격이 2~3배 급등했다고 보도하자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소비자 당국에 조사를 지시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날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04명으로 늘어났다. 브리타니 지역 모르비앙 도(데파르트망)에서 92세 남성이 사망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증가했다. 프랑스에서는 코르시카 섬을 제외한 전체 13개 지방 행정구역(레지옹) 중 12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만, 자가격리 위반 남성에 첫 4천만원 '벌금폭탄' 전염병 방지 새 법령 첫 적용

대만 당국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새 법령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처음 부과했다고 대만언론이 보도했다.

4일 반과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북부의 신주 현정부는 전날 관내 주민 린동징에게 자가격리 규정 위반을 사유로, 강화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에 따라 처음으로 벌금 100만 대만달러(3962만원)를 부과했다.

현정부는 린씨가 14일간의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연락을 끊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으며 타

인의 건강 등을 위협해 이같이 벌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린씨는 지난달 25일 샤먼 항공편으로 대만 북부의 쑹산 공항에 도착한 뒤 오는 10일까지 신주현 주베이시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의 감명을 우려해 바로 주거지로 돌아가고 "대만의 명품"이라 불리는 시먼딩 지역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당국에 알리고 2번이나 가짜 주소를 제시했다.

그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신주현은 지난달 28일 그의 신상을 공개해 연락 촉구와

시민의 신고를 당부했고, 린씨는 곧 주거지 파출소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린씨는 타이베이 101 빌딩이 있는 신이구의 모 백화점 및 클럽, 북부의 유명 해변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만 EBC 방송은 전날 오후 북부 지중시에서 자가 격리 중인 여성이 몰래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만난 지인에게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과 맞닿은 후난성에서 2일에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놀란 주변 승객의 요구로 버스 정차 및 경찰 신고, 긴급

소속 등 소동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대만에서 기존의 '전염병방지법'의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벌금 상향 등 처벌 강화를 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자가 격리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기존의 최고 30만 대만달러(1190만원)에서 최고 100만 대만달러(3900만원)로 강화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이 지난달 입법원(국회)을 통과해 같은 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애플, 중국 이어 한국·이탈리아 출장 제한

구글은 개발자회의 취소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사 직원의 한국, 이탈리아 출장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 2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이탈리아를 포함한 몇몇 국가에 대한 출장 제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중국 출장 제한 조치는 이미 그 전부터 내려졌다. 애플은 또 각종 회의나 출장을 최대한 전화와 영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구글은 지난 3일 오는 5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 예정이던 '구글 I/O' (연례 개발자회의)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매년 전세계 IT(정보기술) 업계의 주목을 받아온 구글의 연례 행사다. 구글은 성명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없게 돼 슬프지만 건강과 안전이 우리의 우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 기업들의 출장 제한이나 행사 취소는 갈수록 늘고 있다. 아마존, 인텔, 시스코 등은 오는 9월 미 올랜도 주에서 열리는 의료 IT 콘퍼런스인 'HIMSS'에 불참을 선언했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